

2023년 신년 메세지

친애하는 하느님 백성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미뤄 두었던 일을 한다는 생각에 부푼 기대감도 있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걱정이 앞서 주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강원도는 과도한 규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자치법을 입법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경제와 편리함, 관광이라는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지켜온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헤치지 않는 평화로운 땅 강원도의 새로운 모습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또 우리 하느님 백성들은 ‘말씀살기’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두 번째 해를 지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품고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해, 검소한 삶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구를 살리고 기후환경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하지만 예언자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을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살아있는 분으로 느끼는 신앙 감각이 필요합니다. 신앙 감각은 하느님께서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시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는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하느님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느님과 나의 삶을 공유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서로서로가 희망을 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참 행복을 일구는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2022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